

# 가정상담

2016 **6**

통권 394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본소 광배희 소장이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5월 3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관련기사 30면)



상담소는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폭력경험자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와 행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피해자 간담회의 모습이다. (관련내용 6면)

- 4 •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0주년 기념  
가정폭력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 6 • 특별기획 | 창립60주년기념 가정폭력관련 간담회 ❶ | 가정폭력피해경험여성
- 14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❸
- 19 •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4강
- 23 • 소송구조
- 26 • 소송구조 후기
- 27 •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 후기
- 28 • 결혼과 인생(160) 영화 이야기  
룸(Room) \_ 김용언
- 30 • 상담소 소식
- 32 • 지부소식
- 33 • 상담통계
- 34 • 새로 들어온 책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이 달의 메시지



### 창립 60주년 기념- 가정폭력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 K씨에게

오랜만에 뵙는 가정폭력피해자 K씨의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여 좋았습니다.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고 상담소에서는 2002년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행복찾기 부부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담소에 상담 위탁된 부부를 대상으로 처음 열렸던 모임입니다. 집단상담과는 또 다르게 행위자인 남편들과 피해자인 아내들이 모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K씨와 같은 피해자 아내들의 한결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저들의 얼굴에서 표정마저 지워 버렸구나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 희로애락 모두를 지워버린 저 표정이 가정폭력의 얼굴이구나 생각했습니다. K씨를 비롯해 거의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 폭력을 당했을 때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애들은 어찌나, 경찰에 신고할까, 해도 될까 하던 망설임과 두려움,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상담소를 거쳐 오늘 다시 그 얼굴에 표정을 되찾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표정으로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야기하며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당신의 태도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기에 언제, 어떠한 이유로 갈등과 마찰을 다시 겪게 될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문제 해결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결의 주체인 K씨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긍정적이고 기쁜 날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며, 상담소의 문은 언제든지 K씨에게 열려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 P씨에게

P씨는 가정폭력행위자로 법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다 마친 분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는데도 상담소를 찾아 그간의 소회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게 폭력인지 몰랐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부장의 권위가 없어지는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펼쳐 놓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간의 세월에 대한 질은 아쉬움과 회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음주문제가 부부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다며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 음주문화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술은 배우기 쉽지만 끊기는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대목도 뜻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하니 아내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화해서 이제는 가정이 많이 화목해 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P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P씨의 아버지와 P씨 세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 중년 남성들이 겪는 문제의 본질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그 노력의 속도는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이러한 현실이

다 보니 자녀들은 21세기, 아내는 20세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남편만 19세기의 사고방식으로 매사를 재단하려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 가정에서는 물론 다른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텐데 시간을 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2일과 24일에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마친(혹은 진행 중인) 피해자 · 행위자 간담회를 각각 진행하여 개인적인 소회와 상담소에 바라는 부분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단상담의 좋았던 경험, 상담시간이 좀 더 길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자나 행위자 모든 분들이 상담소가 더 많이 알려져서 자신들과 같은 가정폭력 경험자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의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가 편지를 쓴 분들은 구체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나아가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들입니다. 상호 간의 폭력이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내, 여성이고 행위자는 남편, 남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 중심 가부장제의 폐해를 다시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전반의 폭력성을 깊이 우려합니다.

폭력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와 가정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 저 같은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먼저 상담소로 가라고 하겠어요

상담소는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폭력경험자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와 행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5월 12일에는 배우자로부터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4일에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한 남성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이후 18년간 시행해온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였으며,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폭력근절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일 시 :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후 1:30-3:00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
- 좌 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객배희 소장
- 참석자 : - 상담소 관계자 :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 가정폭력피해경험여성 5명 (상담 종료 4명, 상담진행 중 1명)  
: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받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행위자의 배우자

이름	나이	혼인신고	가족관계	상담 종료시점	상담 경과	현재상황
김○○	49세	1997년	1남 2녀	2014/3/11	아내 : 개별상담 남편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 : 부부상담	화해, 동거
임○○	58세	2010년 (이혼후 재결합)	1남 1녀	2014/11/3	아내 : 개별상담, 라오니모임 남편 : 개별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 : 부부상담	화해, 동거
이○○	55세	1983년	1남 1녀	2015/7/6	아내 : 개별상담, 교육강좌, 라오니모임 남편 : 개별상담, 교육강좌,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부부 : 부부상담	화해, 동거
이□□	62세	1972년	1남 1녀	2015/12/1	아내 : 라오니모임, 라오니캠프 부부 : 부부상담, 교육강좌, 음주문제 상담, 부부 집단상담,	화해, 동거
박○○	60세	1981년	1남 1녀	2016/6/16 종료 예정	아내 : 개별상담, 남편 : 개별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 : 부부 집단상담, 부부캠프	화해, 동거

**곽배희 소장** :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에게 상담소를 친정, 어떨 때는 시집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상담소는 그렇게 편한 곳이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음 편하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이유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인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지요. 또 내가 가정을 깨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이 고민해보셨고 마음도 아파하고 고통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지난 날의 고통을 잊고 남편과 원만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거나, 꾸려가기로 마음먹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혼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최초로 배우자가 나에게 폭언 내지는 폭행을 하였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 저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어서 모든 삶이 신앙 중심으로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목표로 결혼을 했어요. 시집식구들 섬기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주고 싶었고, 가정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 나가리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도박을 하러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두 번 집에 들어왔어요. 시동생을 데리고 살면서 첫째를 낳고 일 년이 되었는데 시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시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앨범을 정리하다가 시동생의 똑같은 사진 두 장이 있기에 제 앨범에 시동생 사진은 하나면 족하다 해서 한 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앨범 위에 시동생 사진을 붙여놓았는데 남편이 자기 동생 얼굴을 찢었다고 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거예요.

**곽배희 소장** : 지금 박○○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 그 남편의 행동이 조금 과하다 생각되고 부인도 그 사진을 찢었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나이도 젊었으니까 찢었을 것 같아요.

**곽배희 소장** : 이○○씨는 어떠세요? 그때가 기억나세요?

**이○○** : 저는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툼 끝에 남편이 저에게 베개를 던졌어요.

오남매의 큰 딸로 자라서 부모한테나 누구한테나 맞거나 하는 일을 안 당해봐서 저에게는 남편이 베개를 던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술 마시면 항상 폭언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자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술만 마시면 서너 시간은 기본으로 평소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술만 마시면 다 터뜨렸어요.

**곽배희 소장** : 아내한테 받았던 불만 같은 거 말이죠? 남편이 좀 내성적인가 봐요?

**이○○** : 네, 그때는 그걸 모르고 싸웠는데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보니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며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곽배희 소장** : 정답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남편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씨는 어때요? 처음 폭행이 언제 있었나요?

**이○○** : 저도 결혼을 일찍 했어요. 친정에서 계모하고 살다 보니 빨리 결혼해서 나오고 싶었는데 남편을 사무실에서 만나 교제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 마음으로 내가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성격이나 집안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만난 거잖아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폭력, 폭언도 하고 서로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그걸 남편은 보고 배운 거겠죠. 저희 친정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계모라고 해도 부모님이 싸우는 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결혼 후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은 직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고시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돈을 대주니까 남편은 씽씽이가 컸는데 그런 문제로 다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욕을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지요. 여자인데다가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큰소리가 나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큰애를 낳고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했어요. 같이 산지 한 두 달 만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부터 폭언이 나오고 그러다가 돈 때문에 화가 나면 저한테 욕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폭력이 조금씩 시작된 거예요.

**곽배희 소장** :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기억 안 나세요? 어떨 때 남편이 욕하고 때렸을까요? 예를 든다면 나는 돈

을 벌었고, 남편은 직업이 없었고, 이런 상황도 문제가 되었겠지요?

**이○○** : 시어머니께서 돈을 조금씩 몰래 주시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겠다던 남편이 공부를 안했어요. 바둑을 좋아하다보니까 기원을 자꾸 가는 거예요. 도시락도 싸주었는데 조금씩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다 보니 말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욕이 나오고요.

**곽배희 소장** :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어린 아이 다루듯이 “갔냐, 안갔냐”, “했냐, 안했냐” 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 : 네. 그게 자꾸 찾아졌어요. 남편은 시간관념이나 돈 개념이 없어요. 정적인 걸 좋아했고,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다보니까 제가 기원과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했는데 사람들이 바둑 두러 와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밤을 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취직을 하였고 33년간 직장에 다니다 올해 정년퇴직해요.

**곽배희 소장** : 임○○씨는요?

**임○○** : 처음 폭력을 당한 경험은 잘 기억나지 않고,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올 무렵에는 매일 싸웠어요. 남편은 여자관계도 복잡했고, 술과 도박을 좋아해서 우리 부부는 이혼을 한번 했어요. 아이들은 대학공부라도 마치게 하여야겠기에 자기 아빠하고 살도록 했지요. 이혼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았지만 결국 그 여자도 나갔다고 하더군요. 딸이 연락해서 그 여자가 나갔다고 하면서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해요. 애 아빠도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안 변했기에 재결합을 하지 않다가 11년 전에 이제는 변했겠지 하고 재결합을 했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재결합 초기에는 계속 여자관계, 도박, 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박하는데 쫓아 다니고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을 하였어요.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게 되었구요. 지금은 도박, 술, 여자문제 없어요.

**곽배희 소장** : 그러면 지금은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임○○** : 술은 좋아하니까 마셔요. 그러나 폭력은 하지 않아요.

**곽배희 소장** : 김○○씨는 어떠세요. 처음에 남편이 폭행이나 폭언 등 행패를 부렸을 때의 상황과 지금 살아보면서 남편이 조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중 어느 쪽인가요?

**김○○** : 많이 변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족이 많이 싸웠고 갈등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 때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었죠. 사소한 것도 너무 커져버리고 부부싸움이 가족싸움이 되니까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한 1년 정도 힘든 상황을 겪다가 저희가 나왔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왕래를 안 하고 살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섞여 있구요. 남편 혼자 잘 버텨서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하고 떨어져 살면서 남편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빚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리를 한 상태예요. 폭력사건이 있었던 것은 채무 정리가 되고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때린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애들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아빠가 많이 변했더라도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술을 한잔 먹고 와서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귀를 한 열대 때렸대요. 그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애들이 다 봤죠. 번번이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 연락을 받고 간다고 했더니 119 불렀다고 하면서 엄마가 오면 잡히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19가 올 정도면 많이 다친 거니까 많이 놀랐죠. 왜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전화하세요’ 라고 했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119가 오니까 남편이 자동으로 연행되더라고요.

**곽배희 소장** :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기를 무시하고 반항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김○○** : 네. 말투가 너무 건방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여도 용납할 수 없었죠. 경찰서에 갔는데 무슨 귀신에 씌인 것처럼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칼을 책상마다 다 꽂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결혼하고 16년 된 때네요.

**곽배희 소장** : 적어도 15년 이상 살았는데 그런 남편의 태도나 성격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김○○** : 경상도 남자라서 화나면 참지 못하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그 때 상조회사를 다녔어요.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매우 적었는데 상을 치르면 3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에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사건 이후로 전직을 하였어요.

**곽배희 소장** : 그러면 지금은 돌발적인 행동이랄까 그런 것은 없나요?

**김OO** : 그런 것은 없는데 저는 좀 불안해요. 내가 만약 화를 내면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겠지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어느 날부터는 화를 내면 내가 괴로우니까 화를 안내요. 그냥 넘어가요.

**곽배희 소장** : 그러니까 김OO씨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하고 완벽하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김OO** : 아니, 그렇다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곽배희 소장** :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당했네요. 당연히 이런 것은 범죄에 속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남편의 과거를 다 용서하고 내가 참고 결혼을 했다거나, 또는 시집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살았다거나, 남편이 여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참았다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된 불만이라든가 한편 생각하면 공치사같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초부터 이런 것들을 안고 들어갔네요. 그러나 누구나 결혼할 때 서로 완벽한 조건하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봉변과 예기치 못한 행동도 당하고 너무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상담소에 오셨지요. 그래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겠으나, 그냥 살아야지, 삶이란 게 별거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사시잖아요? 상담소에 와서 상담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삶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소에서 받았던 상담이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외에 본인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살았던 것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전적으로 상담소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도 남편도 뭔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소와서 상담, 교육받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범죄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모두 느낀다고 대답함.) 그런데 배우자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상담을 꺼리던 남편이  
중반이 되면서는 바빠도 열심히 가고,  
어느 날에는  
상담소에서 받는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되니까  
저에게도 가보라고 하더군요.



**박OO** : 저의 경우는 남편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이 겁을 먹었어요.

**이OO** : 네. 1998년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생긴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상담소에 오게 된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니까 법이 강해졌다는 것을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달라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3일에 한번이었다면 점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두 번으로 변했어요. 상담소에서 상담 받을 때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상담이 끝나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자, 프로그램도 받았고, 이렇게 해봐야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근래에 와서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한 두 잔 마시고 와서 씻고 들어가서 자요.

**곽배희 소장** : 남편도 폭력을 하게 되면 범죄라고 느끼고, 100프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이 다섯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박OO씨 남편은 아직 프로그

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인거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남편이 달라졌고 변화도 보였는데, 과연 그것이 '또 폭행을 하게 되면 법원을 가야되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귀찮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여러 가지 생활에도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기인한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범죄다' 라고 느꼈기 때문인지요? 남편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입장일까요?

**이○○ :** 제 남편은 '법적 절차가 귀찮으니 폭력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과 다툼 때 남편이 열 마디 하면 저는 스무 마디를 했는데, 상담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지나면서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제는 내가 말을 조금 줄이고 남편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매일 반주도 하고, 술이 있는 곳은 무조건 찾아가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변한 것은 남편이 육해도 제가 육하고 같이 나가지 않고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곽배희 소장 :** 상담 받고 남편도 변했지만 이○○씨가 많이 변했네요. 남편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폭력을 줄일 수 있나를 깨달으셨네요.

**이○○ :** 부딪히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설령 뭐 화가 나서 저한테 그러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해요. 또 돌이 싸우다 보면 아이들이 있을 때 없을 때 구분도 못하고 맞부딪힐 때가 많았고, 아이들이 중간에서 막아서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조심하라고 해요.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구요.

**곽배희 소장 :**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고, 반성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남편도 변했네요. '변했다'라는 효과의 의미는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효과도 있고,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김○○씨도 그래요?

**김○○ :** 네. 저는 교육이 많이 보탬이 되었어요. 처음에 상담 받을 때는 남편이 난리를 치더니 중간정도 되니까 바쁜 시간에도 열심히 상담 받으러 가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는 말이

상담소에서 받는 교육이 너무 도움이 되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폭력은 없었는데 폭언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환자였구나' 라는 것어요. 어머니 밑에서 억압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남편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남편의 폭언도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전에는 남편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까봐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아빠 앞에서 애들이 싫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빠는 자꾸 애들한테 원가를 해보려고 해요. 아들은 상처가 있어요.

**곽배희 소장 :** 물론 상처는 있겠지만 김○○씨가 중간역할을 잘 해야겠네요. 남편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많이 외로운데 아내가 그랬다고 자식까지 아버지를 무시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김○○ :** 특별히 나쁜 것은 없는데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요. 자신은 너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곽배희 소장 :** 임○○씨는 어떠세요?

**임○○ :** 남편이 전에는 폭행을 많이 했는데, 상담소에서 상담받은 후로는 폭행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요즘에도 술은 좋아하지만 도박은 잘 안해요.

**곽배희 소장 :** 그리고 여자관계도 이제 없고... 어찌되었든 상담소의 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나도 물론 돌아보고 반성하지만 남편도 가장, 남편,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네요.

**임○○ :** 많이 좋아졌어요. 교육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곽배희 소장 :**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처방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육과 상담과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께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남편이 말할 틈 없이 말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말 많이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완력으로 아내를 제압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씨 경우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아주 강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거기에 자식들이 동조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소외되고 고독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일에 여러분이 본인들처럼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 일단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남편에게 좋은 소리로 말한 후 남편 행동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 여자는 약하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일단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또한 필요하면 신고를 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해요. 이걸 진작 알았다면 저도 처음부터 신고했을 거예요. 신고를 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 참았는데, 신고를 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오랫동안 끌지 않고 진작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담소에 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의 과정은 참 기분이 나빴어요.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일일이 물어보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두 번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은 물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겠지만 경찰서에서 상담소까지 오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만약 내 친구가 그런 경우라면 바로 경찰서로 갈게 아니라 상담소로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신고를 하고 경찰서로 가서 혼 좀 내줘야지 이라고 간거거든요.

**임○○ :** 남편과 싸울 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숙인다고 때리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 숙여도 때리니까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보아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몇 십 년 동안 겨우 옷만 집어던지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조심하더라구요. 최대한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고 강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 :** 저는 지금도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소에 가라고 얘기해 줘요. 내 경험도 그랬구요. 상담소에 오기 전 파출소에 갔는데 다 남자들이더라구요. 경찰이 '남편이 성실한데 몇 년에 한번은 폭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봐준 적도 있고요. 저의 경우는 다른 분보다 폭력 횡수는 많지 않지만 '아, 이제는 죽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폭력의 정도는 컸어요. 의자를 제 앞으로 집어던져서 머리를 30바늘 꺾은 적도 있고요. 몇 년 전에는 맞아서 코뼈가 찢어지기도 했어요. 그 상황은 제가 맞을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일을 겪을 때 피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밖으로 나가요. 경찰서에 가셔도 적극적으로 상담소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도 수그러들어요. 말로만 강하게 나가라는 게 아니라, 태도와 말과 상황이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강하게 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때는 도움을 받고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곽배희 소장 :** 박○○씨는 아직 상담 과정에 있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 것 같습니까?

**박○○ :** 뭐라고 확답을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의견이 다른 게 20년 동안 완전히 현모양처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선포를 했어요. 오빠 성격이 고쳐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살 것 같다고 선포를 하고 남편이 전화기 던지면 나도 던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당신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빌어도 보고,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같이 싸워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봤어요. 기라면 기고, 무릎 꿇고 빌라면 빌고, 그래도 안되더라구요. 남편이 저를 때린 것은 그동안 계속 제가 참았지만, 딸이 제 편 든다고 딸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를 했어요. 결혼한 지 35년쯤 되었는데, 우리창이 다 깨지고, 우리가 깨진 곳에 갓난아기를 던지고, 피를 흘려야만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술도 안 먹는데 맨 정신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62세예요. 저는 신앙을 보고 시집을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집살이 할 때부터 심장병이 왔어요. 아이를 낳고 시집식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제 삶의 급선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집식구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했죠. 시동생도 정신이상으로 집 나가서 지금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큰 시누이도 정신이상이어서 저는 아이들을 시집식구들로부터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곽배희 소장** : 아까 전화기를 같이 던지면 남편이 놀라더라고 하셨는데, 나도 남편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남편이 좀 놀라는 점이 있네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남편이 어떨 때 그런 행동을 하던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요?

**박○○** : 말대꾸 할 때, 그리고 돈을 썼을 때요. 남편은 지금 건축업을 해서 벌 때는 벌고, 저는 살림만 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의 도박을 알고 시부모님한테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살림만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내 가슴에 못이 박힌 것은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실 때 남편이 외도를 하고 번 돈을 다 그 여자한테 가져다준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대소변을 다 치우는데 남편은 다방 여자와 눈이 맞아서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번 돈을 다 그 여자한테 갖다 주고요. 저는 교회 식구들한테 생활비 빌려 쓰고 사방에서 돈을 빌려 살았는데요. 남편은 외도한 여자에게도 폭행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 몇 백 만원 빌려주고 안주니까 때렸더라구요.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좋은 사람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원금을 다 갚고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곽배희 소장** : 지금 박○○씨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해결책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박○○** : 이○○씨는 고발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 동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경찰관이 조서를 앞뒤로 쓰라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쓸 정도로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진직에 왔어야지 왜 여태까지 참고 살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만 들어도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곽배희 소장** : 그러니까 박○○씨는 이 사람하고 앞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박○○** : 네. 거의요.

**곽배희 소장** : 거의는 뭔가요? 조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련인가요?

**박○○** : 글썄요. 그게 미련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걸리구요.

**곽배희 소장** : 박○○씨는 지금 이 가정을 끝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변화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맞춰가며 살 것인가,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는 남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상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설령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박○○씨가 노력하고 참으며 산다면 아마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곽배희 소장** : 그동안 상담소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아까 이○○씨가 가능하면 경찰서에서 조치를 받는 것보다 직접 상담소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담소가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런 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나 이후에 상담소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 : 저는 상담소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전보다 많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강해져서 꼭 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렇게 변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곽배희 소장** : 오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이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이○○** : 상담 처음과 마지막에 하는 설문지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서 쉽고 공감이가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임○○** : 상담시간을 좀 더 길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더 길게 하고 기간도 연장해서요. 그러면 여유롭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 저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곽배희 소장** : 상담소는 1998년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정문제를 상담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반 타인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보다 더 강력하게, 좀 더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80년, 90년대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범죄로 보는 그 자체가 벽에 부딪혔고, 설령 이것을 범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뭘 그렇게까지 처벌하고, 형을 살게 해야 하나며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법 제정을 주장하였는데 1997년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8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왔어요. 그리고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분들의 성향, 성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보완하고,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무슨 문제는 없을까? 어디를 개선하여야 할까? 수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전부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의견들을 검토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제 맘에 와 닿는 것은 가정에서 폭력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반드시 통하게 되어있지만 그 전에 상담소에 먼저 와서 상담도 받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듣고,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우리 상담소에서 일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경찰에 동행해서 두 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보좌인제도'를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오래 전부터 상담소가 생각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찰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 요즘 경찰은 많이 친절해졌어요.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리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어요. 중간에 전화해서 상담도 해주던데요.

**곽배희 소장** : 대한민국 경찰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 경찰서는 싸워서 가게 되는 것인데, 조서를 쓰려는데 경찰 한분이 저한테 여자가 사납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 경찰의 한 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곽배희 소장** : 경찰서마다, 또는 경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찰이 있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경찰이 있고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길게는 수 백 년간 짧게는 수 십 년 간 내면화되고 습관화된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가정폭

력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편안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박○○** : 저의 경우는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신고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곽배희 소장** : 상담소의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정을 꼭 밟아 보세요.

**박○○** : 저는 가족끼리도 상담을 받고 싶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부모가 싸우면서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한 치유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혼을 빨리 안한다고, 또 취직을 못한다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비하하고 남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화가 많이 나서 말대꾸를 하게되더라고요.

**곽배희 소장** : 중간에서 박○○씨가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이□□** : 저는 상담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곽배희 소장** : 언제든지 상담소에 오세요.

**이○○** : 이렇게 언제든지 상담소가 열려있다는 것이 잘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곽배희 소장** : 옛날에는 상담기관이 우리 상담소 한 곳 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는데 지금은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최종적으로 상담소에 오다보니 늦어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방송에 광고도 하면 좋지만 돈이 드는 일이라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죠.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가자 모두** : 감사합니다.



##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3)

### 방어와 생존을 위해 행위자가 된 피해여성들

장 희 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최근 가정폭력 영역에서 행위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 가정폭력의 행위자 문제는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연구와 개입 문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폭력동기에 있어 남성은 통제, 억압, 징벌이 강하고 여성은 방어, 보복, 분노, 차원의 폭력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나타난다. 또 다른 차이점은 폭력의 영향인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두려움, 우울감, 트라우마 증상 등 심리 내적인 피해도 매

우 큰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 2. 폭력을 사용하는 한국 여성들의 특성

폭력을 사용하는 한국 여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다수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며, 외국과 달리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고 남편보다 신체적 폭력과 억압적 통제 모두를 더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대다수가 남편에게 심한 폭력과 통제를 받는 피해자 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여성행위자들을 남성행위자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음주 문제와 폭력허용도는 낮았고, 트라우마 정도는 남성들보다 높았다. 여성 행위자들은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해자형, 공격 대응형, 통제 대응형이다. 혼합형에 속하는 경우 남편의 폭력에 신체폭력으로 대응했느냐, 억압하는 통제로 대응했느냐하는 대응방식의 차이로 차별화할 수 있었다. 공격 대응형은 남편보다 신체폭력을 좀 더 많이 행사

\* 본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실시하였고, <가정상담> 4월호와 5월호에 본소의 수탁사건 상담통계 발표를 요약 게재한데 이어 이번 호에는 법원, 검찰 등 각 부문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지면관계상 주석은 생략하였다.

하는 여성들로서 12% 정도로 나타났다. 억압적 통제를 남편보다 더 행사하는 여성들은 10% 정도로 나타났다.

### 3. 생존폭력 여성들의 체험 - 절벽 끝 여성들의 맞섬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2015년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해 본 결과, 폭력 행위를 중심으로 한 여성행위자들의 생존폭력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로서의 저항이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여성행위자들의 폭력과 연관되는 요인 중 하나가 원가족의 폭력이었다. 여성행위자들과 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이 있었고, 주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으며 그로 인해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행위자들의 생존폭력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는데, (1)분노발산형은 그동안 쌓인 분노가 분출된 것이고, (2)보복형은 그 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응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3)과거 차단형은 반복적인 남편 폭력을 끝내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4)생존형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폭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여성행위자가 폭력을 사용할수록 남편의 폭력성도 역시 강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행위자들은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남편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은 여성행위자들에게 이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한 여성행위자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특이할만한 점은 여성행위자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 최종적으로 이혼을 선택한 여성행위자는 두 명이었는데, 이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여성행위자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 4. 제언

보호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이 과연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부부 쌍방이 경찰에 신고 되었을

때 폭력의 동기, 주제, 정도, 맥락, 내력 등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누가 더 피해자이고 행위자인지 조사가 이루어진 뒤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과, 생존폭력은 일방적 폭력과는 차별화되어야 하고 처분의 부과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주된 행위자인지 분류해 낼 수 있는 분류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성행위자들에게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안전계획, 심리적 외상치료, 분노조절 및 비폭력 관계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성장기에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여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음주문제, 공동의존 그리고 성인아이

김혜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문제음주

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남용약물의 하나이다. 음주는 내성과 금단증상의 정도에 따라 남용, 의존의 단계로 진전되며, 이 과정에서 음주자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음주상태를 국내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등의 낙인성을 고려하여 '문제음주'라 부른다. 문제음주는 알코올남용이나 알코올의존 또는 알코올중독과 같은 병리적인 음주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위험음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문제음주는 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 10대들의 문제음주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음주문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넘나들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

가 사회범죄의 원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2.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음주와 가정폭력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자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게 하여 폭력에 대한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에는 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여기는 가부장제의 문화적 맥락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두 가지에 대해 상이한 시각에서 상이한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부모의 음주문제의 영향

문제음주는 만성적·진행적·치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부모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유전적 결과를 초래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5배정도 높다.

### 1) 알코올중독자 자녀(COAs)

알코올중독자(COAs)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부모의 문제음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

COAs는 non-COAs보다 알코올중독의 위험성이 3~4배 더 높으며 언어적, 신체적 학대 및 근친상간과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다른 또래 아동보다 학대받기 쉽고 자존감이 낮으며 우울해지고 희망 없음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COAs는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체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부모의 음주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데, YWCA가 2002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상담실을 방문하는 80-90%의 청소년이 술 문제를 둔 부모를 두었다고 하며 청소년의 갈등과 문제의 대부분이 부모의 음주문제로부터 파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자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성장했음에도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정서, 강박적인 사고의 특성, 권위 지향적이고 타인의존적인 대인관계 특성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발달지연 즉, 성인아이 증후군(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이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상을 알코올중독자 성인아이(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로 부른다.

알코올중독자 성인 아이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의존적인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중독자 성인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불안과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을 공동의존으로 보기도 한다.

### 2) 공동의존

공동의존(codependency)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 사람이자 그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고심하며 집착하는 사람의 특성을 일컫는다. 공동의존의 개념은 알코올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이자, 오래 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나 인격특성이라는 개념으로 더욱더 확장되어 통용되고 있다.

공동의존은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대상이나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며 자신을 위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고통, 삶에 좌우되어 행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숨기는데 급급하며, 타인이 저지른 부정적인 결과를 대신 책임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정상이라고 믿는 무의식적 은폐와 억제, 투사, 합리화를 하면서 구원자-박해자-희생자로 구성된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문제를 가진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못된 아이를 구원하는 좋은 부모”인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 주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박해자”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죄책감과 부적절감을 느껴 “희생자”가 되는 역할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타인초점과 자기무시, 원가족 문제, 낮은 가치감, 자기 숨기기 그리고 의학적 문제 등의 5가지 핵심문제가 있

고, 공동의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 행동을 하고, 강박적 행동에 따른 감정조절의 실패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만성 불행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문제를 조장한다.

## 부모폭력에 대한 관점과 개입 방안

### - 자녀가 통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1. 부모폭력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서 “부모를 대상으로 힘을 얻거나 부모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자녀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 권력구조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성인에 의해 행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부모의 돌봄 하에 있는 미성년 또는 성인기 미혼자녀의 부모폭력은 권력위계상 역행하는 폭력으로서 노인학대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본 발표에서 부모폭력은 미성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부모폭력이 배우자폭력이나 아동학대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처음으로 규정한 Harbin과 Madden(1979)의 연구 이후 다양한 발생원인, 인적특성, 다른 가정폭력과 차별성, 개입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부모폭력은 여전히 낮은 영역이며, 부모폭력의 다른 이름은 패륜이다. 폭력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특히 부모폭력은 원인이 무엇이든, 폭력이 발생한 상황이 어떠했던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패륜적 행위’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 2. 부모폭력의 실태

○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아동·청소년 대

상 부가조사로 부모폭력 조사

-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5.1%, 정서적 폭력 13.6%이었음.
- 신체적 폭력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경한 폭력이 4.4%, 중한 폭력이 2.3%로 나타남.
- 부모의 피해율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았음.
- 가해자는 딸이 아들보다 부모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세대학교 가족복지팀(1999년, 2008년, 2015)의 청소년 대상 조사연구

- 1999년 연구 : - 아버지 신체폭력 2.7%, 언어폭력 9.4%
  - 어머니 신체폭력 6.5%, 언어폭력 15.4%
  -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부모 모두에 대한 폭력이 더 높음.
- 2008년 연구 : - 부모에 대한 전체 폭력률 25.3%
  - 신체폭력 9.7%, 언어폭력 22.9%
- 2015년 연구 : - 부모에 대한 전체 폭력률 12.2%
  - 아버지 폭력 6.8%, 어머니 폭력 10.0%
  - 정서폭력과 경미한 신체폭력은 어머니, 심각한 신체폭력은 아버지가 높음.
  -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폭력률이 다소 높음.

[외국의 실태]

외국의 부모폭력률은 문헌에 따라 5%~29%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7%~13%에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부모폭력의 특성

[부모폭력의 발생 원인]

- 가족 요인
  - 가정폭력 경험
  -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양육방식
  - 갈등이 많은 부부관계
  - 부모-자녀간 약한 정서적 유대
  -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
  - 부모-자녀간 소통의 어려움
- 자녀 개인 요인
  - 우울, 공격성, 낮은 자존감, 높은 폭력 허용태도, 분노조

절 어려움, 성격 장애, 술, 인터넷 중독, 학습장애, ADHD 등

○ 발달적 요인

- 청소년은 발달단계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개별화를 추구하는 시기임.
-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과 충돌될 때 부모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

[부모폭력의 전반적인 특성]

○ 통제와 지배권

- 폭력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권력이 없다고 인식함
-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함.

○ 부모의 대처

- 부모폭력 피해 부모는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절망적으로 느끼게 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부정하기도 함.

○ 폭력의 양상

- 가정폭력의 행위자들은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과 충동적 폭력(impulsive violence)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짐.
- 도구적 폭력은 부모에 의해서 공격적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서 기능한다는 경험을 이전에 보았거나 습득한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충동적 폭력은 부모가 한 어떠한 행위가 자녀가 느끼기에 개인적 공격으로 느꼈을 때의 충동적 반응인 경우가 많음.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황]

- 영국의 18개 온라인 훈육지원 웹사이트에서 자녀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부모들의 글 33개를 선정하여 분석함.
- 부모의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 불안, 분노, 수치심, 절망, 상처, 배신, 죄책감 등이었음.

4. 개입방안

1) 결과보다 과정에, 개인보다 관계에 주목

연구와 임상에서 부모폭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꼽고 있지만 부모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인 부모들에게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의 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반항, 버릇없음, 욕구불만, 욱하는 성질, 학업 스트레스, 사춘기 증상 등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녀의 공격적 행동이 부모와는 별개인 자녀만의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부모폭력을 자녀 개인의 문제로 간주할 때 부모는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고 폭력은 심화된다.

부모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돕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폭력이 발생하고 유지되어 온 과정에 주목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부모폭력 특성에 맞는 개입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에서 1998년에 정부 지원으로 미국 최초로 '부모폭력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도 초기에는 성인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맞게 수정 발전되어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과 문화에 맞는 부모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경찰의 적절한 대응

현재 가정폭력의 경찰 대응 요령이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부모폭력이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는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 수칙을 만들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함.
- 부모들은 자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음.
- 부모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함.
- 청소년의 다른 문제(예를 들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4강\*\*

## 관계의 뇌와 사랑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지난번까지는 감정에 대한 것 즉,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강의주제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관념적입니다. 객관적인 과학의 세상에서는 규명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사랑이라는 감정도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랑은 '나'와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포유류 이상의 동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곤충의 세계에서조차 혼자 살아가는 개체가 개미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집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개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처럼 다른 곤충을 사육하기도 하고 자손을 양육하여 3대가 같이 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로 진화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더 발달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뇌의 진화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세포 생물을 이루는 진핵세포가 출현하는데 지구 역사의 반에 해당하는 20억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단독세포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7억년 전에 다세포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하고 곧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나타내고 2억년 전쯤 공룡과 포유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하게 됩니다.

포유류인 쥐가 공룡과 같이 공존하였는데, 사실 쥐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공룡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화경쟁에서 포유류는 공룡을 이깁니다. 처음에 포유류는 공룡이 살지 않을만한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게 됩니다. 포유류가 진화 경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를 과학자들은 포유류가 새끼를 낳아 길러 생존율을 높이고, 야행성으로 살면서 뇌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포식자들을 피해 야간에 주로 활동하면서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당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청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태반을 진화시키면서 출산과 수유에 관여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어마어마한 진화적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옥시토신은 새끼를 낳고 수유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어미와 새끼가 서로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옥시토신이 없으면 새끼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아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것처럼 자신만큼이나 다른 개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감정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포유류부터 존재하며, 이 호르몬이 작동하여 애착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지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외도 하면서도 배우자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옥시토신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초에는 어미와 새끼사이에만 애착이 형성되었다가, 점차 발전하여 그 다음엔 형제자매간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최초의 동물 가족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옥시토신 호르몬이 있다면, 남성에게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작동하면 수컷들은 암컷과 새끼를 보호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논문이 이것입니다. 초원에 사는 쥐와 산에 사는 쥐의 행태에 대한 비교연구입니다. 초원에 사는 들쥐는 일부일처제인 반면, 산쥐는 난혼을 합니다. 왜 같은 종인데 '행동이 다른 것일까?'가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결과는 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수치가 높고 산쥐는 낮은 것이었습니다. 들쥐의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수치를 낮추었더니 산쥐와 같이 애착이 없는 행동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암컷 들쥐의 옥시토신 수치를 높였더니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암컷의 새끼들을 돌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상대의 눈을 쳐다보고,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지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

질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발달되고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유류, 영장류, 유인원으로 진화할수록 일부일처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긴 시간 동안 1:1의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부일처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더 발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감정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을 통해 우리는 소통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뇌가 발달해야 하고 발달된 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마음과 달리 실제 상대방의 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있다면,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있어야 한다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라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너'라고 한 이유는, '너'라는 것은 나 이외의 사람, 타인을 의미하고, 그가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접촉을 맺는 수많은 타인들이 바로 '너'이며, 그 '너'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루 동안 '너'는 계속 바뀌는 존재, 즉 지금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이외의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결국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 식당주인이 명성을 얻는 것처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나 이외의 '너'를 얼마나 만족시켜주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아닌 나 이외의 타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짝짓기 할 때의 사랑(열정적 사랑)이고, 두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안정적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은 도파민 계열, 안정적 사랑은 옥시토신 계열의 호르몬이 관여하며, 안정적 사랑은 엔돌핀과 비슷한 호르몬 계열이 그 역할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 대상에 열중하여 입맛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등 도파민 계열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호르몬은 최대 6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한 번 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적 사랑은 관계를 맺지 않는 동물들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곤충에게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랑은 관계를 맺는 동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은 안정적인 사랑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에서의 나이든 부부가 하는 사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이며, 이것이 완성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하여 도파민계열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춥니다. 시간이 지나 호르몬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 서서히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각 개인의 요구는 높아진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기에 갈등 후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일체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뇌가 진화되어야 합니다. 즉 관계를 맺는 뇌의 진화입니다. 뇌의 중앙에는 변연계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 편도체, 뇌하수체, 대상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뇌하수체와 편도체 등이 변연계에서 관장하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가장 밑에 배경정서(통증, 쾌락)가 있고 그 위에 1차정서(기쁨, 슬픔, 분노)가 있으며, 그 위에 사회적 정서(웃음, 동경)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는 포유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사회적 정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피질은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에 반응하며, 마음의 통증과 육체적 통증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이를 비난하고 경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옥시토신이 관여하며,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란 관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굳이 행동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명백히 행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교성적이 낮다는 지적을 할 때 아이들의 대상피질은 고통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스킨십이 그 답입니다. 스킨십은 결합을 뜻합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엄마가 안아

주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옥시토신의 작용은 엔도르핀과 비슷하여 안락함을 느끼게 하고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양쪽이 서로 포옹하면 서로 같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런 현상을 변연계가 공명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나의 뇌와 상대방의 뇌가 같이 공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가 좋아야 이루어지며, 부부관계든 스킨십이든 양쪽이 모두 만족해야 두 사람의 사랑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옥시토신이 계속 분비되면서 사랑이 지속되고 애착행위가 계속되면, 배우자는 '너'이지만 그녀는 나와 가장 근접한 '너'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사랑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이지만 타인과 같게 됩니다. 사이좋은 부부는 계속 사랑을 유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집단의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크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커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인식은 확장되었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초기의 언어는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이 아니라 서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능이었다가 나중에 정보 교환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유류가 스킨십을 통해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울신경세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영장류부터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개체의 활동을 정교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픈 표정을 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소리까지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전에 사랑을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있고 이는 변연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기능을 합니다. 표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내가 어떻게 움직

직일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서로에게 '나'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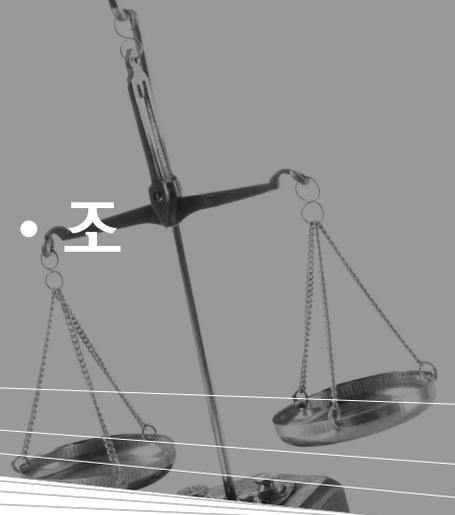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표정을 지어본다고 가정하면, 거울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만 보더라도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바라만 보아도 다른 사람의 뇌와 공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공명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행복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연계 공명을 쉽게 생각하면 결국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들었을 때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소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타자의 변연계와 울림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우애, 민족애 같은 넓은 의미의 사랑 역시 공통의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공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 문자를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뇌가 공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책을 통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유류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 필요했던 애착, 즉 사랑의 행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뇌가 서로 연결되어 공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공감이 어우러져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킨 것처럼, 인간의 문명은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분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계속된 사업실패로 채무만 남은 노년 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5-42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3세)의 남편은 1996년 경부터 컴퓨터, 상업부기 학원을 운영하며 신청인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학원 운영에 실패하면서 신청인 명의의 빚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신청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를 만회해보고자 2002년 10월부터 2006년까지 대출을 받아 아들 명의로 김밥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남편은 2015년 6월 사망하였고, 남편 명의의 채무에 대해 신청인과 자녀들은 2015년 7월 상속포기를 하였다.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고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일을 하기 어려웠다. 자녀가 마련해 준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 방에 거주하며 20만원 남짓의 노령연금으로 생계만 겨우 유지하던 신청인은 파산선고 및 면책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채무자를 면책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요청을 받고 나서 연세도 있으시고 남편분이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조신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업무적인 제 맥투가 무안할 정도로 의뢰자께서는

차분하신 목소리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본 사건은 얼마 되지 않아 면책에 이르렀고, 면책소식을 알려드리는 저에게 의뢰인은 그저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제계획을 세워 생활하시는 의뢰인에게 진심을 담아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실직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신청인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5-446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1995년 무일푼으로 상경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오다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일감이 없어지면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다시 취직을 하였고, 적은 임금으로 인해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충당하였다. 하지만 그 이자가 크게 늘어나 월 150만원도 되지 않는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변제가 어려웠다. 이에 신청인은 2013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년 2월 경 매월 약 37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2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된

신청인은 결국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차 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신청인은 2015.10.02.부터는 자활근로를 하며 월 65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외국인 아내에 대해 이혼 등 조정**

**법률구조 2015-501, 502**

**담당 :** 이종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50세)는 2005. 10. 12.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9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왔으며, 2008. 8. 28.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언어, 문화, 생활 등 모든 것이 낯설었던 원고는 피고 한 사람을 보고 결혼하여 낯선 나라에서 생활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수시로 원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사건본인 또한 피고의 폭력을 무서워하며 늘 불안한 감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대전가정법원 2016. 2.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의 가족이 이전에 원고에게 지원해 준 500만 원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완료함)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다.

4. 피고는 2016.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 : 피고가 지정하는 각 7일간

2) 피고의 모친 생일 : 1일

3) 설날과 추석 중 한번 1박 2일

나. 면접교섭 장소 :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인도방법 :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면서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5. 원고는 위 4항과 같은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피고는 면접교섭 시 사건본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7.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적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혼 조건을 속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5-523**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혼인의 무효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66세)는 2015. 9.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2015. 8. 자신이 로또에 당첨되어 15억 원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결혼을 하자고 따라다녔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며칠 후 피고가 한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5. 10. 원고의 머리,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같은 해 원고

를 재차 폭행하여 원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이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살시도를 한 것처럼 꾸며낼 것을 원고에게 종용하는 등 배우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1.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혼 후 밀린 양육비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

**법률구조 2015-576**

**담당** : 손난주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0년 12월 혼인해 슬하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었지만, 이후 2009. 6. 23.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9. 6. 2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2015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는 지급받고 있지만, 이혼 후 밀린 양육비가 총 18,000,000원에 달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아내를 의심하고 자녀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15-172**

**담당** : 심미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

**내용** : 원고(여, 41세)와 피고(남, 43세)는 1999년 10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7세)과 사건본인2(여, 15세)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가의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한 반면, 자신은 원고의 친정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 2를 후 원고가 바람을 펴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냐며 의심하여 추궁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의 성장과정에서 무분별한 폭행을 가하여 왔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5. 11.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1. 26. 까지는 연 5%,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9. 24.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한국에 여행 와 미혼부가 된 미국인 아버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여행비자로 한국에 머물던 미국인이 한국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으나 곧 헤어지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이나 중국을 오가며 체류를 연장해 왔으나,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다른 나라에 다녀올 동안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불법체류를 할 위기에 있고,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도 막연하여 이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소송구조 신청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라 하였고, 의뢰인의 비자 만료일은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아이 엄마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이름은 물론 아이 엄마가 다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와 엄마의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아이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 서울가정법원에 급하게 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서운 겨울바람 사이에 아주 작은 아기를 한 팔로 달랑 안고 나타났습니다. 허술하게 쓴 포대기와 미리 타와 차갑게 식은 분유를 보자 의뢰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영어실력으로 의뢰인에게 비자 발급 절차, 소송 절차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의뢰인의 문제를 설명하고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간청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았으나, 아이가 의뢰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이의 미국 여권은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화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려워 의뢰인과 함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판결을

받아오면 아이의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만 심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더라도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이 없으면 아버지인 의뢰인이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는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인 출생증명서 원본을 발급해주는 것은 의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원, 구청, 병원 등에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를 하였고, 다행히 아이가 태어난 S대학병원 법무팀에서 친생자관계확인 판결이 난 경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병원의 답변은 없었고, 기다리다 지친 저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세 번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를 제기한 후에야 혼외부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판결로 확인된 경우 혼외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는 병원의 연락이 왔고, 저는 세 번째 소를 바로 취하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을 위한 구청의 조사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출생신고 및 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불만 전화 및 방문, 이외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막아달라는 아이 엄마의 전화까지 받아야 하였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한지 1년 3개월여 만에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아가며 자신과 아이가 함께 찍은 돌 사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나들이’에 다녀와서

본소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본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 참석자들의 소감을 심는다.

.....  
**권\*\*, 권\*\* 맘. 72이라.**  
.....

아이들과 놀러 갈 여유도 안 되는 어느 날 나너우리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생각 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GO!를 외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둘째아이가 어려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에버랜드 갈 날만 기다리며 설레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다가오자 어릴 때 소풍가던 것처럼 잠도 설쳤습니다. 집이 멀어 모임장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레크리에이션도 제겐 너무 유익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사람이 많아 관계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내 아이들도 내 말을 안들을 때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오는 곳이라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힘들어도 참고 오늘은 아이들과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몸은 고단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여유가 되지 않아 여기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도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식사이용권을 주셔서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못했던 것도 사주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숙소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캠프 이후로 또 한번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주세요. 한부모 가족에겐 이런 시간이 흔치 않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캠프가 힐링이랍니다.

.....  
**조 \*\***  
.....

가법교육과 웃음치료세미나 그리고 에버랜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감동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내용도 실제적으로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주셨고 웃음치료를 통해 삶에 지친 엄마들에게 함박웃음을 선물 해 주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도 식사 및 간식, 그리고 숙박까지 준비한 손길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고 추억할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깊은 배려로 불편함이 없었던, 즐거운 봄 소풍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봄날에 어머니들 뿐 아니라 모두의 가슴 속에 춘풍이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소감문을 빌어 이 자리를 마련 해주신 관계자, 후원자님,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 & 김\*\***  
.....

겨울에 한껏 움츠리고 있다가 새싹이 나듯이 좋은 날씨에 너무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에 1박까지 하며 즐거운 소풍을 즐기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안 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 방방 뛰는 모습을 보며 엄마들은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놀이기구를 타며 목청껏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형편에 이렇게 여행 와서 1박까지 하며 보낼 수 없는 걸 알기에 더 알차게 보내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우리 \*\*이에게 아주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깊이 간직하게 해주고 싶네요.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충분히 재충전되어 더 활기찬 일상으로 Go!!Go!! 이렇게 행복한 여행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발이 바닥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었네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룸(Room)

감독 레니 에이브러햄슨

출연 브리 라슨, 제이콥 트렘블레이, 조안 앨런, 손 브리저스



열일곱 살 소녀 조이(브리 라슨)는 하룻길에 낫선 남자 닉(손 브리저스)에게 납치되어 감금당한다. 그녀는 임신했고 아들 잭(제이콥 트렘블레이)을 낳았다. 가로와 세로 길이 모두 3.5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만을 의지한 채 살아간다. 잭의 다섯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조이는 더 이상 잭을 이곳에 가둬둘 수 없다고 결심하며, 닉의 숨막히는 감시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다. 조이와 잭은 마침내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넓은 세계는 또 다른 감옥으로 다가온다.

2016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룸>은, 동명의 원작 소설(엠마 도노휴 지음, 유소영 옮김, 아르테 펴냄)을 바탕으로 했다. 이 소설은 또한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일명 ‘요제프 프리츨 사건’에서 출발했

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지하 감옥에 24년간 감금하여 아이를 낳게 했던 충격적인 실화다. 엠마 도노휴는 이 사건에서 필연적으로 내포된 반인륜적인 선정성과 잔혹한 폭력 대신, 지극한 모성과 생존 본능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픽션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영화 <룸> 역시, 어린 아이 잭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 채 불가해한 악 앞에서 어리둥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고 비참한 결핍을 외면하려 애쓰는 생존 본능을 일종의 우화로써 재구성해낸다.

여기에는 무고한 어린 소녀를 납치해 무려 7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했던 파렴치한 강간범이 있고, 간이 조리 도구와 욕조와 세면대만 있는 방에서 영양 결핍과 추위와 운동 부족에 시달려야 했던 두 모자가 있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도움을 청하는 아이를 귀찮아하며 무시하려던 경찰이 있고, 가까스로 탈출한 딸이 강간범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 받아 그 손자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보길 거부하는 아버지가 있다. 겉으로는 귀환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7년 동안 ‘정확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이를 낳은 것이 어린 엄마의 극도의 이기심 때문인 건 아닌지 궁금해 하고 또 비난하고 싶어 하는 대중들이 있다.

영화는 이 모든 비극을 아주 담담하게, 어떤 면에선 이상하리만치 피해 가면서, 잔혹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시선을 통해 스쳐가듯 짚어낼 따름이다. (심지어 엄마 조이는 영화가 2/3쯤 진행되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리를 비운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서 어떤 힘겨운 극복의 과정을 거쳤을 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어떤 비극적인 환경에서도 단 한명의 지지자만 있다면 서로를 의지하면서 고통을 이겨낼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이의 굉장한 생존 본능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어두운 고뇌와 찢어지는 비명으로 성폭력을 그리는 대신, 그로부터 빠져나온 이들의 희망을 더 중시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 어떤 관객에게는 이 같은 ‘밝은’ 우화가 강조된 측면이 오히려 의아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비극을 제대로 응시하고 비극을 비극답게 그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게 된

다. 성폭력의 풍경의 선정적인 착취를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방에 갇힌 여성과 아이의 고통에 몰입하느라, 정작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겪게 되는 불안과 소외된 감정을 또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는 게 가능했을까? 강간의 가장 큰 이유는 권력욕 혹은 지배욕이라고 한다.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이 욕구의 폭력적인 분출은, 그리고 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현재에도 너무나 흔하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한 방식'으로 그려내야 하는가에 앞서, 이 폭력 자체를 아직까지 근절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흥미로웠던 장면. 가까스로 방에서 탈출한 잭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잭의 뒤를 쫓아온 닉이 “내 아들” 운 운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상대방은 닉을 미심쩍게 바라보고 잭의 간절한 표정을 쳐다보더니 아이의 편에 선다. 그제야 닉은 비열하게 꿈꾸니를 감춘다. 만약 이 순간, 개를 산책시키던 이 평범한 남자가 잭이 아니라 닉의 말을 들었다면? 이 상상은 너무나 끔찍한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장면이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그 어른은 아이의 곁에 질린 요청을 귀 기울여 듣고 아이의 공포와 간절함을 눈치챘을까 궁금했다. 무수히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를 읽노라면 그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2016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곽성환, 김수정, 김영주, 김태주, 류은아, 박수열, 박은정, 송명호, 유정아, 이경석, 이지선, 정수경, 천정환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재희, 김진아, 김현아, 심미숙, 이승주, 임주용,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김영진,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윤혜정, 차혜진, 정주은, 이현지, 전승민, 김수현, 임재우, 전다윤, 이예린, 김유진, 박정현, 이경철, 심우봉, 허난영, 조혜린 님

• 상담 자원봉사(4월 4일~5월 25일)

최지연 변호사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서지연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 상담소 소식



## 본소 광배희 소장

###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

본소 광배희 소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제16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은 이화여대 동창이거나 이화여대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사회 각 분야에 서 탁월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이화정신의 귀감이 되는 이들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광배희 소장은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부터 상담소 상담위원, 부소장,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 가족법개정운동,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 및 법교육 등에 힘쓰면서 우리 사회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5월 3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있었다.(관련사진 2면)

## 서울시민청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 성황리에 열려

본소에서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민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법 퀴즈 풀기, 모의재판 관람, 가정의 평화와 관련한 그림그리기 등의 체험을 통해 가정과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법 퀴즈 풀기 활동에서는 다트던지기, 고리던지기, 주사위 게임 등을 하면서 가족법 퀴즈를 풀어 남녀노

소 참여자 모두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 교육을 모두 즐겁게 참여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라는 주제로 에코백에 그림그리기 체험에서도 남녀노소 모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꼭 알아야 하는 가족관련 법 이야기,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모의재판 연극을 자원봉사자들이 시연하였는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람하였고, 모의재판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뿐 만 아니라 관람한 일반 시민들도 학교 폭력과 가족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법 관련 체험 교육을 통해 그 동안 잘 몰랐던 가족법, 가족관계 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으며,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 시민청 내 행사장에서는 체험 법교육 외에도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즉석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 하였으며, 가족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은 체험교육을 기

다리는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법개정 운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법개정 서명에 참여하였다. 양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1,627명의 시민이 함께 하여, 법개정 서명에는 913명, 체험 법교육에는 700명, 법률상담에 14명이 참여 했다. 상담소에서는 변호사, 법무관, 상담위원 등 직원 9명, 자원봉사자 105명이 참여하였다.

###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교육부에서는 5월 26일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분노의 의미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58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분노의 사회적 기능과 분노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전주지부 신임 임직원 본소 방문

지난 5월 13일 전주지부 신임 오숙현 이사장과 유순금 소장, 전주지부 이사 및 임직원 등 18명이 본부를 방문하여 본부 광배희 소장과 면담하였다. 전주지부는 1988년 개소한 지부로 현재 활발한 법률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임 임직원들의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 높이고자 본부를 방문한 것이다.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학생 연수 - 강진희

●사법연수원 전문분야실무수습 (5월 30일~6월 29일)  
김범준 (사법연수원 45기)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서지연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공익법무관

### 출장법교육 및 상담

- 5.11. 학부모대상법교육 - 오산양산초  
- 최수진 상담위원
- 5.31. 성도대상 법교육 - 온누리교회  
- 조은경 상담위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19일 각당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에서 상속과 유언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광배희 소장, 중국 중앙TV(CCTV) 등과 인터뷰

본소 광배희 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5월 12일과 24일에 각각 열린 본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행위자 간담회를 주관하였다. 13일에는 전주지부 신임 임원진의 본소 방문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고,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과장과 아동 정책 담당 팀장이 방문하여 본소와 관악구청 간 업무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16일에는 상담소 창립 60주년과 관련하여 법률 TV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중국 중앙TV(CCTV)와 노년이혼에 관해 인터뷰했다.



# 지부소식

## 강릉지부

5월 16일, 17일, 3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현남중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총 4회, 100명).

## 거제지부

5월 21일, 22일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진성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구리지부

5월 9일, 23일,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10일, 23일에는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장경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상담위원 22명이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부부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5월 21일, 28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지원사업으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장준범, 윤용원, 정

수희, 김중기, 구은미, 윤준상, 이규영, 최은철, 박준수, 이성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9회, 가사재판 상담 총 6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렛으로 총 10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문대근, 김승구, 이해민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김승구, 이해민, 김정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정혜, 김진영, 김현명, 박지훈(성남), 박지훈(수원), 양승철, 장미애, 전태우, 최유나, 한승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순천지부

5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후견·복지프로그램 및 상담 연계기관 지정식을 가졌다.

## 익산지부

5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2일,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5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총 21 건 실시하였다. 5월 12일, 19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문원, 한대삼, 김홍면, 현창곤, 황인철, 박

현민,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김세희, 백신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울산지부

5월 12일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중구지부

5월 3일~5월 24일 종사자 교육으로 “카네기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주 1회, 총 4회기). 이재경, 김창건, 장상현, 노문기, 박은정, 정형준, 이동진, 이영주, 임유정, 여지은, 백준익, 이수희, 정수경, 박수열, 홍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진주지부

5월 3일 정기이사회 및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창원·마산지부

5월 3일, 12일, 19일, 26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7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전철우, 강은실, 홍강오, 백경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청주지부

4월 27일 이사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15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 춘천지부

5월 3일, 17일 화천푸르나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 노인대학 등에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 2016년 4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4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468건으로 본부가 6,310건, 지부가 6,176건이었다.

본부는 5,755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47건·소장 등 서류작성 164건·소송구조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84건·화해조정 893건·소장 등 서류작성 42건·소송구조 57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75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1.7%→2.2%), 위자료·재산분할(11.8%→12.1%), 양육비(7.0%→8.3%), 면접교섭권(2.2%→2.3%), 이혼무효·취소(0.2%→0.3%), 가사절차(3.9%→6.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1.3%→1.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75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77건(22.2%), 전화상담 4,249건(73.8%), 통신 및 인터넷상담 228건(4.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 2016년 5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199					
법률상담 (5,696)					
면접	전화	통신	지상	순회	
1,335	4,125	232	1	3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96		163		44	

\* 2016/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4,582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310	1,277	4,249	228		지상 1	5,755	347	164	44
강릉 (033) 652-9555	110	79	15				94	12		4
거제 (055) 633-7636	84	58	24				82		2	
광주 (062) 672-6011	77	34	43				77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39	193	52				245	85	4	5
군산 (063) 442-1560	121	41	55				96	22		3
대구 (053) 745-4501	603	284	37	3		출장 126	450	151		2
대전 (042) 520-5258	237	42	187				229		8	
제주 (064) 753-9421	338	82	134				216	119		3
동해 (033) 535-0188	83	27	51			출장 5	83			
목포 (061) 273-2514	103	3	95	1			99	3	1	
부천 (032) 667-2314	284	94	138				232	52		
성남 (031) 707-6661	282	129	65	4			198	76	3	5
수원 (031) 243-4600	530	105	253			출장 26	384	144		2
순천 (061) 753-9910	187	69	104				173	10		4
충구 (02)2238-6554	348	231	112				343			5
안동 (054) 856-4200	85	6	34			출장 1	41	42		2
울산 (052) 246-9568	102	15	81				96		5	1
익산 (063) 851-5113	260	80	168			출장 4	252		1	7
인천 (032) 865-1120	268	142	113				255	4	6	3
전주 (063) 244-2930	374	151	94	117	5		367		1	6
정읍 (063) 535-3705	100	32	59				91	8		1
진주 (055) 746-7975	126	38	56	1			95	31		
창원·마산 (055) 261-0280	371	270	72	2			344	23	2	2
청주 (043) 257-0088	223	79	54	1			134	85		4
춘천 (033) 257-4688	184	120	17			출장 47	184			
태백 (033) 554-4004	73	11	32			출장 30	73			
평택·안성 (031) 611-4251	115	37	61				98	16		1
제천 (043) 644-5690	82	43	35				78			4
포항 (054) 283-7555	87	10	65				75	10		2
지부총상담	6,176	2,505	2,306	129	5	출장 239	5,184	893	42	57
총 상담	12,468	3,782	6,555	357	5	출장 239 지상 1	10,939	1,240	206	101

\*\*2016/4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21,514건

## 법 관련도서

헌법재판실무제요, 가사소송실무, 개인회생파산실무, 주해친족법, 친족상속법강의, 한국호적법제연구, 신민사소송법 등 기본서 다수와 사법연수원 교재, 양육비 이행제도 관계법령집 등 13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가족정책, 여성가족법제, 한부모가정, 성인지, 여성폭력, 간통죄 폐지, 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여성과 가족에 관한 이슈를 담은 2015년 보고서 49권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 가족관계등록사무 개선, 파산법원, 부동산 등기·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성희롱 등 법적 이슈를 담은 2015년 보고서 22권

##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재산권, 헌법재판제도 등과 관련한 2016년 보고서 7권

##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아동학대, 성폭력, 성희롱 등과 관련한 2012~4년 보고서 13권

## 일반도서

토리네 집 1	장차현실 만화   보리   2015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하이네 브레히트 외   푸른숲   1995
2015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한강 외   문예중앙   2015
2016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김채원 외   현대문학   2015
2016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경욱 외   문학사상   2016
아빠가 미안해	고주애   소담주니어   2015

외 41권

## 곽배희 소장 기증자료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이라	필립 체스터필드   乙酉文化社   1990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이해동   현존사   1994
가족문제론	이영숙 외   학지사   1999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한남제 외   茶山出版社   1994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엮갈린 '진실'	이혜영 · 정인교   시대의창   2008
현대사회학	앤터니 기든스   을유문화사   2003
소외란 무엇인가	프리트 파펜하임   화다출판사   1974
지역감정연구	김종철 외   학민사   1991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학회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김정옥 외   학지사   1999
여성 몸 · 성	장필화   또 하나의 문화   1999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윤후정   여성신문사   1997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범우   2013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안경환   효형출판   2001
도요새에 관한 명상	조세희 외   문예산책   1995
어떤 술거의 죽음	조정래   해냄   2012
장준하의 구국장정 6천리 따라 자전거 기행	이규봉   문화의 힘   014
남·북한 현대사	임건언   삼민사   1989
5 · 16, 우리에게 무엇인가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평화복지포럼   2011

외 200여권

최정아 사서

# 2016년 6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7/25 휴강)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  
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 일시 : 2016년 8월 27일(토) 오후4시~28일(일) 오후1시
-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접수 중(참여를 원하는 분은 미리 배  
우자와 상의하여 참여의사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6월 23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7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가족의 현실과 미래-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창립60주년을 맞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엽니다.

본소는 지난 1956년 문을 연 이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평등·양성평등한 가족 의식의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창립60주년을 맞은 지금, 상담소의 설립 목적이었던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왔고 그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  
또 가족의 복리 수준 현황과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6

\*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 발표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정현숙(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과 남성의식 변화  
- 정유성(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 김혜영(숙명여대 산업정책대학원교수)

\*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 손애리(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 조영훈(동의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